

‘시네마프로젝트 2020’ 선정작 스틸컷 담겨

전주국제영화제 2차 포스터 공개

‘애프터워터’ 한 장면 채택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제2회 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20’ 선정작 스틸컷이 담긴 2차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14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스페셜 포커스와 특별 전시를 통해 소개하는 퍼피 애니메이션의 거장 케이 형제의 작품 ‘악어의 거리’ 스틸컷을 활용한 1차 공식 포스터를 공개한 바 있다.

이어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20 선정작 중 하나인 대니 콰렌 감독의 ‘애프터워터’의 한 장면을 채택, 2차 공식 포스터를 제작했다.

‘애프터워터’는 유고슬라비아 출신 대니 콰렌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연출작으로 픽션과 다큐멘터리, 실험 영화를 넘나드는 형식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세상과 떨어져 호숫가에서 시간을 보내



는 인물들을 서정적이고 따뜻한 이미지 안에 담아내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세계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조직위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관객과 영화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영화제’라는 형식적 실험을 통해 기존 개최 일정인 이달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열흘간 심사 상영과 온라인 상영을 진행한다.

올해 영화제 공식 초청작들은 오는 6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열리는 장기 상영회를 통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는 관객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극장에서 관객과 공식 상영작이 제대로 만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준동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창작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영화가 관객과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된 아쉬움을 달래고, 극장에서 영화를 제대로 보고 싶어 하는 관객들을 위해 장기 상영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영작 중 가장 화제가 된 영화들을 모아 진행되는 영률 상영회 ‘폴링 인 전주’를 영화제 개최 일정 안에 포함해 오는 9월 20일까지 관객들이 올해의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상영작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전북을 찾은 컨셉러’... 유튜브 크리에이터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 25일 오후 6시까지... 웹하드 영상 제출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2020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소규모(그룹), 힐링, 청정, 스마트, 언택트(비접촉) 등의 관광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전북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는 크리에이터 활동의 활성화 및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기존 10팀에서 14팀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에 재단은 2020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전북을 찾은 컨셉러’에 참여할 크리에이터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을 주제로 영상 제작 및 주요활동에 참여 가능한 내외국인으로,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창작역량을 갖춘 크리에이터 개인 또는 팀(2인 1조)이다.

주요 활동은 전북도를 방문해 문화관광 관련 영상 콘텐츠 3편을 제작하고 워크숍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실비 보조를 위한 소정의 활동비(편당 50만원)가 지급되며, 영상 제작 전문 업체를 통한 멘토링 교육도 진행된다.

또한, 크리에이터 참여 활동 작품 중 우수 작품 5편을 선정해 시상(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 70만 원, 우수상 2편 100만 원, 특별상 30만 원)과 외국어 번역, 그리고 집중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할 크리에이터는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웹하드(www.webhard.co.kr)jbctyoutube)에 지원서와 동영상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나 문화관광팀(063-230-746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16일

‘풍류마루’ 공연 무료로 재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13일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지침에 따라 휴관한 국악원을 철저한 방역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16일 오후 3시 예일당에서 풍류마루 공연을 전석 무료로 개최한다. 이는 ‘정준호 장단 컬렉티브’가 출연해 앉은반 설장구, 판소리와 고백, 승무, 태평무, 〈씻김시나위〉 등 전통장단 속에 어우러지는 소리와 몸짓의 황홀한 무대를 선일 예정이다.



정준호 장단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백 이수자로 현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수석단원으로 재직 중이며, 정준호 장단 컬렉티브는 명창 방수미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백경우, 앙상블시나위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현식, 국가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다시래기 전수교육조교 강민수 등 국악계의 젊은 명인·명창·명무로 구성되었다.

이번 공연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관객석을 70%로 한정하는 예약(063-620-2324,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관람제이며, 출연진 및 스태프,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된 공연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예촌 ‘꽃담장’, 새롭게 연다

남원시, 16일부터 6일까지... 제철 농산물 추가 프리마켓 구성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관광투윈 인근의 남원예촌 주말 상설프로그램인 ‘꽃담장’이 이번 주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온다.

남원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속속농부들과 ‘꽃담장’을 올해 처음으로 결합해, 오는 16일부터 6일까지(매주 토) 남원예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남원시에서는 이번 ‘꽃담장’에 다양한 셀러들을 참여시켜 제철 농산물을 추가한 다양한 프리마켓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속속농부들과 통합해 꽃담장을 운영하는 만큼 민간 참여기능은 더욱 강화되고, 코로나 19 여파로 수급이 어려운 농산물 판매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매달 이색적인 컨셉의 프로그램을 편성, 재미와 다양성도 확보할 예정이고, 동선도 대폭 확대해 기존 남원예촌 문화마당에 머물던 공간을 똑방 및 경의상가 등지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남원예촌에서는 ‘활활’을 소재로 한 퓨전거리극과 노상놀이 등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비단치유길, 관서당놀이방, 여행자 쉼터 예무원 등지에서도 색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당초 3월부터 꽃담장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해 5월부터 개장하게 됐다”면서 “당분간은 ‘청정 남원’을 지키기 위해 밀집도가 낮은 체험과 이벤트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생활방역 체계를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새롭게 변신한 다채로움을 만나보라”고 권했다.

올해 3년째를 맞고 있는 ‘꽃담장’은 그동안 다양한 공연과 체험, 셀러의 특색 있는 수공예품이 한데 어우러진 이색적 프리마켓으로 펼쳐져, 남원예촌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나무배 띄우기 등 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한 결과 ‘16회 운영기간 총 매출 1억여원을 기록하고 약 6만여명이 다녀가는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교육문화회관, 도서관 주간 행사 운영

전북교육문화회관(관장 오진)은 오는 23일까지 ‘도서관 책 한 권 세상을 테이크아웃하다’라는 주제로 도서관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림책 원화전과 연계해 그림책을 활용한 책놀이 활동 ‘그림책과 놀자’, ‘왜지 안 돼지’ 책을 읽고 쿠키를 만들어 보는 ‘쿠키 만들어도 돼지 안 돼지’ 체험과 ‘대출하라! 2020 행운의 뽑기’, ‘퀴즈 온 더 도서관’, ‘책 한권 테이크아웃하세요’, ‘나눔이 두 배! 기쁨이 두 배!’, ‘반납을 잊은 그대에게’ 등 다양하다.

특히 ‘책 한권 테이크아웃하세요’는 이색 대출 이벤트로 ‘블라인드 북’ 형식의 행사다. 블라인드북은 책표지를 알 수 없게 포장하여 겉면에 써 있는 책과 관련된 힌트를 보고 책을 선택해 이용자가 대출하는 이벤트다.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하는 이용자에게 책 추천의 기회를 얻고, 읽고 싶은 책만 읽는 이용자엔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루에 10권씩 선착순으로 대출 가능하다.

전북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도서관에서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답답하게 갇혀있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서관 주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문화회관 누리집(lib.je.go.kr/jc)이나 독



서교육과(☎270-1647)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신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기전 전주현대미술관장 선정

이기전 전주현대미술관 관장이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종후보자에 선정됐다.



이 후보자는 전주 영생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미술학(서양화) 및 동 대학원(미술학)을 졸업했다. 현재 이 후보자는 전북대학교 객원교수 및 (사)국제미술협력기구 이사로 활동 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